

動向分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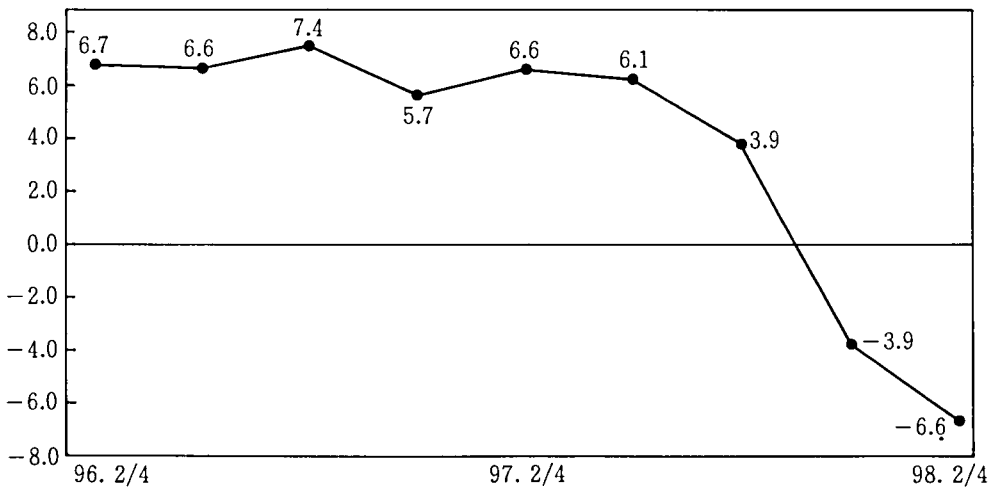
經濟一般

● 경제성장률 -6.6% : 경기침체 더욱 심화

지난 1/4분기에 198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(-)성장을 하였던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
의 여파와 내수부진의 심화, 그리고 수출증가를 둔화로 더욱 악화되어 2/4분기에는 -6.6
%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(그림 1 참조).

이같은 상황에서 금융경색과 소비자들의 소득감소 여파로 내수경기가 극도로 위축되어
산업생산은 지난 1/4분기보다도 더욱 위축되어 전년동기대비 6.0% 감소하였다. 특히
1998년 2/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생산규모의 3분의 1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제조
업의 경우 공장가동률이 전년동기의 81.1%보다도 크게 낮아진 67.1%를 기록하였고, 각종
경기선행지표들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가 당분
간은 지속될 전망이다.

[그림 1] 경제성장률 추이



한편 산업별 생산에 있어서도 제조업, 건설업, 도소매 및 음식·숙박업 등 대부분의 산업 생산이 전년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감소폭도 전 분기에 비해 더욱 커졌다.

제조업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생산이 10.0% 감소하였다. 이 중 경공업은 음식료품, 섬유, 의복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소비의 위축으로 생산이 크게 줄어 14.3% 감소하였으며, 중화학공업의 경우는 전기전자제품의 수출호조에 불구하고 자동차, 산업기계 등의 생산이 크게 줄어들어 따라 전년동기대비 8.9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건설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민간건설과 정부건설 모두 부진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2.1% 감소하였다. 그리고 서비스부문도 역시 통신업부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의 침체로 도소매 및 음식·숙박업,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등이 부진함에 따라 -5.6%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(표 1 참조).

〈표 1〉 주요 거시경제지표

(단위: 전년동기대비 %)

	연 간	p1997			p1998	
		2/4	3/4	4/4	1/4	2/4
산업별 생산	6.1	7.0	6.7	4.7	-2.8	-6.0
농림어업	2.5	2.1	1.0	3.0	4.6	0.0
제조업	6.2	7.2	7.5	4.6	-6.4	-10.0
건설업	2.8	2.5	4.8	3.6	-7.3	-12.1
서비스업 ¹⁾	6.5	8.2	6.6	3.7	-3.5	-5.6
최종 소비지출	3.5	5.1	5.1	-0.2	-9.7	-12.2
민간소비	3.1	4.8	4.8	-1.0	-10.6	-12.9
정부소비	5.7	6.9	7.2	4.0	-4.3	-8.0
고정투자	-3.5	0.2	-3.7	-9.8	-23.0	-29.8
건설투자	2.7	1.8	3.8	3.7	-7.7	-13.2
설비투자	-11.3	-1.8	-12.7	-28.2	-40.7	-52.4

주: 1) 도소매 및 음식·숙박업, 운수·창고 및 통신업, 금융·보험·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,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수입세를 포함. 단, 금융귀속서비스는 공제.

2) p는 잠정치임.

자료: 한국은행, 『1998년 2/4분기 국내총생산(잠정)』, 1998. 8.

1) 서비스업 중 도소매 및 음식·숙박업,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, 그리고 금융·보험·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성장률은 각각 -8.5%, -4.9%, -2.5%를 기록하였다. 반면 운수·창고·통신업은 4.1% 성장하였다.

● 소비와 투자 모두 크게 위축

한편 수요 측면에서도 소비와 투자 모두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. 1998년 2/4분기 중 최종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12.2% 하락하였다. 최종 소비지출 중 민간소비는 내구재 및 준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크게 축소된 데다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저조하여 전년동기대비 12.9% 감소하였고, 정부소비도 인력감축 및 경상경비예산의 긴축운용으로 전년동기대비 8.0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고정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9.8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 중 설비투자는 기업의 채산성 악화 및 부도위험 등의 이유로 기업이 투자규모를 대폭 줄임에 따라 52.4%의 큰 하락세를 기록하였고,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한 투자 역시 줄어들어 전년동기대비 13.2% 감소하였다(표 1 참조).

● 물가상승률 여전히 높음

물가는 환율안정에 따른 수입물가의 안정과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인하여 상승추세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.

1998년 2/4분기 생산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3.9%를 기록하였다. 이 상승률은 전년동기의 상승률 3.5%와 비교하면 크게 높아졌지만 월별로 살펴볼 경우 2/4분기 이후 상승추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소비자물가도 마찬가지로 흐름을 보이고 있다. 전년동기대비 8.2% 상승하여 상승률이 전년동기의 4.0%보다는 두배 이상 높아졌으나 상승률은 2/4분기 이후 둔화되고 있다.

〈표 2〉 물가 동향

(단위: %)

	1997		1998				
	2/4	1/4	2/4				7월
				4월	5월	6월	
생산자물가 ¹⁾	106.4(3.5)	121.2(14.4)	121.2(13.9)	122.1(14.9)	120.8(13.5)	120.7(13.3)	120.1(12.8)
소비자물가 ¹⁾	108.9(4.0)	117.5(8.9)	117.8(8.2)	118.4(8.8)	117.8(8.2)	117.3(7.5)	117.3(7.3)
대미환율 ²⁾	891.7	1,611.7	1,394.6	1,392.0	1,394.6	1,397.2	1,300.8

주: 1) 1995=100 2) 대미환율은 연월평균 기준임. 3) ()안의 수치는 전년(동기, 동월)대비 증감률임.
 자료: 한국은행, 『주요경제지표』, 각호.

한편 1998년 1/4분기까지도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던 환율이 2/4분기 이후 1,300원대에서 안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. 이는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와 단기외채의 만기 연장 등으로 외환수급사정이 개선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.

● 수입의 급감에 의한 상품수지 흑자 사상최고치 기록

1998년 들어 상품수지²⁾ 흑자는 점차 커져 상반기 동안 2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였다. 그러나 이같은 요인은 수출의 증가보다는 오히려 수입의 급격한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다. 통관금액 기준으로 1998년 상반기 중 수출증가율은 수출물량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 하락, 아시아권 경제 악화 및 무역금융 경색 등으로 하락세로 반전되어 전년동기대비 0.7%를 기록하였다.

그러나 수입은 지속된 내수침체의 영향으로 1998년 상반기 동안 전년동기대비 36.9%의 큰 감소를 기록하였다(표 3 참조).

〈표 3〉 수출입 동향

(단위: 백만달러, 원, %)

	1997	p1998			
	상반기	상반기	4월	5월	6월
상품수지	-6,207.5	21,307.5	3874.6	4,251.6	3,480.3
수출 ¹⁾	67,017.0 (3.3)	67,511.6 (0.7)	11963.0 (-1.9)	11,766.6 (-0.1)	11,013.8 (-11.5)
수입 ¹⁾	73,224.5 (4.0)	46,204.1 (-36.9)	8,088.4 (-35.5)	7,515.0 (-38.0)	7,533.5 (-37.7)

주: 1) 수출은 FOB, 수입은 CIF 가격이며 통관금액 기준임.

2) ()안의 수치는 전년(동기,동월)대비 증감률임.

3) p는 잠정치임.

자료: 한국은행, 『주요경제지표』, 각호.

2) 1998년 1월부터 IMF 신기준에 의한 국제수지표 편제계획에 의거하여 국제수지 통계항목이 일부 바뀌었다. 이 중 무역수지는 수출입상품을 상품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상품수지로 변경되었다.